

2026년 2월 4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호주발 금리 인상, 한국에 주는 신호

2026년 2월, 호주 중앙은행(RBA)은 기준금리를 3.85%로 25bp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의 인상으로, 지난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완화 기조로 전환했던 기존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결정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다시 고조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를 기록하며 물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실업률이 4.1%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 중앙은행의 이번 행보를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여지는 한층 제약될 수 있다. 다만 한국 경제 특유의 'K자형 성장' 구조를 감안하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K자형 성장은 산업 및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IT·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반면, 내수 소비와 밀접한 부문은 회복이 더디거나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경기 상단부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수요가 취약한 하단부의 침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 역시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만으로 다층적인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위 계층의 소비 확대와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수시로 자극할 수 있고, 취약 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수출 호조세가 둔화될 경우, 경기 하단부의 위기가 전체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AI 투자 사이클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상단부를 겨냥한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